

**‘막말’ , ‘갑질’ 국회의원, 이대로 둘것인가?**  
- “유권자가 변해야 한다[1]” -

2016. 1.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 김도연

## I 들어가는 말

---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법을 발의하고 만들 수 있는 입법기관이며, 선출직 공직자로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면책특권과 각종 특권 및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직무수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직위에 맞는 책임 있고 품격 있는 언사(言事)로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는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는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의 언행은 법과 규범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제19대 국회의 후진적 정치행태를 청산하고 20대 국회는 국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권자가 변해야 한다’ 시리즈를 기획하였다. 이 보고서는 시리즈 첫 번째 순서로 국회의원 ‘부적절한 발언’ 및 ‘막말’ 실태와 소위 국회의원 직위를 남용하는 ‘갑질’ 행위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국회의원 ‘부적절한 언행’ 및 ‘갑질’ 논란 기록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월 15일까지 주요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와 주요 방송 및 통신(KBS, MBC, SBS, YTN, 연합뉴스)을 중심으로 검색하여 수집했으며, 국회 회의 중 ‘국회회의록검색시스템’에서 검색 가능한 것은 원본을 그대로 인용했다.

## II 본론

---

### 1. ‘막말’의 정치학

19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유난히 국회의원들이 적절하지 못한 언행으로 논란이 되었다. 초선 국회의원에서부터 중진 의원에 이르기까지 소위 ‘막말 파동’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정치혐오감과 정치 불신을 팽배시켰

다.

그러면 왜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이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키는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국회의원들의 ‘막말’ 이후의 상황을 결과론적으로 유추해 보면 우선 정치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다. 특히 일부 초선 의원이나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막말로 인해 순식간에 검색어 순위에도 오르고 각종 언론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막말만큼 존재감을 확실히 높일 수 있는 수단은 드물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치적 이해관계다. 상대방을 막말로 규정했을 경우 정치적 족쇄를 채워 정치적 입지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구 꼴통’, ‘중북(從北)주의자’ 등 극단적인 용어로 상대를 규정할 경우 막말의 대상과 막말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이분법으로 구분된다. 그 결과 막말 대상은 극단적인 집단으로 매도되어 대중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치적 입지를 좁히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연좌제성 막말이 대표적인 경우다.

세 번째는 막말이 정치적 권력 경쟁 속에서 음모로 이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 지도부를 흔들고, 때로는 정치 계파 간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정치 일정이나 계기에 맞춰 막말로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국회의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당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에서 대표로 막말을 한다거나 단순한 분풀이용 등 그 원인은 다양하다.

### ① 누가 주로 ‘막말’을 했나?

제19대 국회의원 중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의원들을 조사한 결과 약 7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이 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54.8%에 해당한다. 다음은 새누리당 26명(35.6%), 2016년 2월 창당예정인 ‘국민의당’ 3명, 무소속 3명, 정의당 2명 순이다(【표 1】 참조). 한 의원이 1회 이상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경우도 있었다.

【표 1】 제19대 국회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의원의 정당별 현황

(기준 : 2016.1.15 단위: 명, 건)

계	정당	새누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73(100)	‘막말’ 의원 수 (비율,%)	26(35.6)	40(54.8)	3(4.1)	2(2.7)	2(2.7)
122(100)	‘막말’ 횟수	40(32.8)	75(61.5)	3(2.5)	2(1.6)	2(1.6)

	(비율,%)					
--	--------	--	--	--	--	--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2016. 1)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의원들을 선수별로 살펴보면 초선 의원이 35명(47.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선 의원으로 18명(24.7%), 재선 13명(17.8%) 순이다. 초선 의원이 많은 이유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재선이나 3선에 비해 존재감이 미약하거나 당내에서 막말로 ‘악역’을 맡았기 때문 인 것으로 추정된다(【표 2】 참조).

【표 2】 제19대 국회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의원의 선수별 현황

(기준 : 2016.1.15 단위: 명, 건)

계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이상
73(100)	의원(%)	35(47.9)	13(17.8)	18(24.7)	5(6.8)	2(2.7)
122(100)	횟수(%)	58(47.5)	22(18)	31(25.4)	8(6.6)	3(2.5)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2016. 1)

## ② 누구에게 ‘막말’ 했나?

국회의원 ‘막말’의 대상 또한 다양했다. 우선 동료의원에 대한 막말이 36회(29.5%)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 26회(21.3%), 국무위원에 대해 12회, 일반국민에 대해 11회,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에 대해 10회 순이다. 동료의원에 대한 막말도 적절치 못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최고원수에 대한 막말, 그리고 국회의원 자신을 선출해 준 국민들에 대한 막말은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난 비상식적인 행위이자 비도덕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표 3】 참조).

【표 3】 제19대 국회의원 막말 대상 현황

(기준: 2016.1.15)

구분	계	국무위원	전·현직 대통령	동료의원	일반국민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	기타
횟수(건)	122	12	26	36	11	10	27
비율(%)	100	9.8	21.3	29.5	9	8.2	22.1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2016. 1)

## ③ 어디에서 ‘막말’했나?

국회의원들의 막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았다. 오프라인상으로는 국회, 당내회의,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막말을 일삼았으며, SNS 상으로도 19회(15.6%)나 조사되었다. 특히, 온라인상의 막말은 그 파급력과 전달력이 빠르고 거의 모든 사회계층이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재고해야 한다(【표 4】 참조).

**【표 4】 제19대 국회 막말 장소**

(기준 : 2016.1.15 단위: 건)

계	구분	국회	당내회의	SNS	언론인터뷰	기타
122	건수	56	24	19	11	12
100	비율(%)	45.9	19.7	15.6	9	9.8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2016. 1)

## 2. ‘갑질’ 국회의원 실태

19대 국회 국회의원의 적절치 못한 발언 이상으로 논란이 되었던 것은 소위 ‘국회의원 갑질’이다. ‘국회의원 갑질’의 전형적인 예는 보좌진에 대한 권한 남용이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진은 특별채용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심지어 친인척까지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국회의원은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좌진의 급여를 착취하여 후원금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보좌진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두 번째는 입법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이나 관련 기관에 청탁 및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다. 기업에 자신의 친인척 및 보좌진의 취업을 청탁하거나 후원금 및 금품을 수수하여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예산 및 일반 국정권 권한을 불모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다. 바른사회가 주요 언론을 통해 수집한 기타 국회의원 ‘갑질’ 행태는 【표 5】 와 같다.

**【표 5】 제19대 국회 ‘갑질’ 국회의원 백태**

(기준일: 2016. 1. 15)

연번	의원명	정당	대상/시기	내용	비고
1	박대동	새누리	보좌직원	전직 비서관이 재직 시절 월급 중 120만원을 13	

연번	의원명	정당	대상 /시기	내용	비고
			2015.12	개월 동안 의원실 인턴직원을 통해 박의원에게 송금. 일부는 박의원의 개인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함	
2	이목희	더불어민주	보좌직원 2016.1	5급 보좌관으로 채용한 직원의 월급 매달 100만 원씩 총 500만원 받아 수행비서와 인턴의 월급으로 지불한 의혹	
				19대 국회 초반 본인의 친동생을 8개월가량 4급 보좌관으로 고용	
3	김상민	새누리	보좌직원 2014.9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겠다고 한 뒤 9급으로 등록. 나머지 차액(약 200만원) 보전 약속 있었으나 불이행. 첫 달은 무급, 5급 등록은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 9급으로 일하며 5급 업무. 열정페이 논란	
			보좌직원 2013	변호사 시험 앞 둔 법학전문대 3학년 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특혜 채용 논란	
4	윤후덕	더불어민주	기업 2015.08	LG디스플레이에 자녀, 입사 과정에서 전화청탁을 하고 특혜 받은 의혹	
5	김태원	새누리	기업 2015.08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게 변호사 아들 취업 청탁 및 특혜 채용 논란	
6	윤명희	새누리	2015.03	직접 운영하는 업체 통해 이름을 내건 쌀 판매	농해수위 소속
7	신기남	더불어민주	로스쿨원장 2015.11	아들의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로스쿨원장을 만나 압력 행사했다는 의혹	
			2015.12	장남이 국회 추천 국비 해외연수 통해 미국 연수(06.07.09~30) 다녀와 특혜 의혹	
8	노영민	더불어민주	피감기관 2015.11	의원실에 카드 결제기까지 설치해놓고 피감기관에 본인의 시집을 판매	산업통상위
9	김광림	새누리	기업 2015.12	국회에서 휴대전화로 친조카에 대한 인사청탁(모 은행 안산지점 근무 중인 조카를 본점 도는 강남 지점으로 인사이동 요구)	
10	박기춘	더불어민주	기업 2015.07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분양대행업자에게 금품(명품 시계, 가방 등 수억 원 대)을 받은 혐의	
11	문희상	더불어민주	기업 2014.12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 미국 회사에 취업 시켰지만 처남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2012년까지 급여 74만7천 달러(약 8억 원) 받아	
12	김태호	새누리	2015.5	15.05.06 임시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청탁성 문자를 주고받다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13	김희정	새누리	2013.4	국회 본회의 중 비서관으로부터 자신의 지역구 인사의 아들 취업청탁 연락을 받고 해당 기관에	

연번	의원명	정당	대상 /시기	내용	비고
				채용 문의	
14	백군기	더불어 민주	2015.01	19대 국회 입성 후 2015.1까지 아들을 7급 비서관으로 채용. 이후 5급 비서관으로 진급. 논란 후 면직처리.	2012년 육사 선배 딸을 6급 비서관으로 채용 '보은논란'
15	박윤옥	새누리	2015.01	둘째 아들을 차명으로 4급 보좌관으로 채용	
			2015.07	동료 의원의 아들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	
16	유대운	더불어 민주	공직자 2015.05	술 마신 채 경찰서 지구대에 찾아가 '바바리 맨'을 찾으라고 사실상 수사 지시	안행위 소속
17	안민석	더불어 민주	공직자 2015.9	전직 오산시의원이 2011.1~약 18개월 동안 차명 계좌를 이용해 시도 의원에게 매 달 10~20만원, 당원과 주민들에게 5만원씩 불법 정차자금 요구했다고 고발 당해	
18	김재경	새누리	도의원 2016.01	심규환 전 경남도의회에게 비서의 급여 절반 정도 부담하고, 2년 동안 총 약 1,500만원 입금 주장	일을 도운 대가라고 반박
19	최경환	새누리	중소기업진흥공단 2015.09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무실 인턴직원의 취업을 청탁하고, 중진공은 채용을 위해 성적이 더 높았던 다른 지원자를 떨어뜨렸다는 의혹	이외 4명의 의원이 더 있다고 하지만 명단은 안 밝혀져
20	오신환	새누리	공직자 2015.10	현행범으로 수사를 받던 지인을 만나러 자신의 지역구 경찰서 방문.	
21	심학봉	새누리	2015.08	7월 대구 한 호텔에서 보험 설계사인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받아	의원직 사퇴
			2016.0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정부출연 연구비를 타내 국가 연구개발 과제 등을 수행하는 A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불법 자금 받은 혐의	1월 13일 체포
22	정우택	새누리	2015.07	정우택 의원의 비서관이 피감기관에 아버지가 재배한 감자 팔아서 논란	
23	김현	더불어 민주	대리기사 2014.09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너 내가 누군지 알아?"등의 언행으로 구설에 오름. 이후 경찰 출석 때도 경찰이 요구한 날짜보다 하루 빨리, 그것도 업무가 끝나갈 무렵 기습 출석해 공권력 농락했다는 지적 받아	당시 안전행정위 소속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2016. 1. 23)

### Ⅲ 맺는 말: 개선방안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적절치 못한 언행의 주체는 여당, 야당, 초선, 재선 등 예외가 없다. 막말 또는 ‘갑질’의 대상 또한 동료의원,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 일반 국민, 보좌관, 기업, 행정부 등 다양하며, 온라인·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막말을 일삼아도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막말’로 국회법 25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해도 당사자에게는 실질적인 처벌이나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

정치인은 그 나라 국민을 대표함으로 정치인의 언행은 그 나라 국민과 국가의 품격과도 관련이 있다. 정치인 스스로 자정 능력이나 제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제는 유권자가 나서야 할 때다.

<첨부 1> 제19대 국회에서 ‘막말’ 및 ‘부적절한 언사’로 논란이 된 국회의원 현황

연번	소속	의원명	일자	장소	내용	비고
1	더불어민주	임수경	12.06.01	서울시 종로구 식당	(탈북자 백요셉 씨를 향해)“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 XX들이 굴러 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기는 거야? 대한민국 왔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 (하태경 의원을 향해)“하태경 그 변절자 XX 내 손으로 죽여 버릴 거야, 그 개 XX, 진짜 변절자 XX야.”	막말
2	더불어민주	이해찬	12.06.04	평화방송 라디오	(진행자가 북한인권법 국회 상정문제를 묻자) “북한 인권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문제다.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 문제에 깊이 주장하거나 개입하는 건 외교적 결례이며 국가 간에 서로 내정에 관련된 걸 간섭하는 것은 외교적 관행으로서는 바람직한 건 아니다.”(진행자가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자) “그건 우리 헌법이며 세계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다.”	부적절한 언사
3	더불어민주	최재성	12.06.07	국회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에 대한 막말로 인해 논란이 심해지자) “일부 귀족 탈북자가 쓰레기 정보를 양산하고 있다.”	부적절한 언사

연번	소속	의원명	일자	장소	내용	비고
4	무소속	심학봉	12.06.11	지역 언론과 저녁자리	(식당 여주인에게) “야, 어디서 일어나. 너는 어 른 이야기 하는데 그냥 나가나.” (지역 인터넷신문C모대표에게) “야, 너 나보다 어 리지. 내가 선거운동 할 때 여기 3번이나 왔는데 사장 너 한 번도 못 봤다.”	막말
5	더불어 민주	김광진	12.10.19	국방위 국감	(군원로인 백선엽 장군을 향해) “민족 반역자”	부적절한 언사/ 이후 2011년 트 위터 글 논란
6	더불어 민주	이종걸	12.08.05	트위터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를 향해) 그년	막말
7	새누리	김재원	12.08.24	식당	(대변인 임명된 직후 일부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아이 병신 XX들이, 너희가 기자 맞냐, 너희가 대학 나온 XX들 맞냐.”	막말
8	더불어 민주	유대운	12.10.15	행안위 국감	(이중구 제주지방경찰청장 직무대리에게) “뻑! 건 방지게 말이야!”	막말
9	새누리	함진규	12.11.09	국회쇄신 특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형편없는 사람이네.’라 며 퇴장하자) “저거 아주 웃기는 사람이네. 기 본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이네, 저거.”	부적절한 언사
10	새누리	김태호	12.12.09	선대본부공 개회의	“검증을 피하려고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 에서 단일화를 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해도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으 로 생각하는, 국민을 ‘홍어X’으로 생각하는 국 민 사기쇼는 중단돼야 한다	부적절한 언사
11	더불어 민주	배재정	13.01.11	원내현안 대책회의 (국회)	“인수위의 언론통제가 3공 시절 5공 시절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의문”	부적절한 언사
12	더불어 민주	김광진	13.01.12	카카오 스토리	“민주당 청년비례출마자 모임. 청출어람. 제 정치의 기반이자 원천...근데 그대들 왜 후원금 안내니?!”	부적절한 언사
13	국민의 당	김동철	13.02.14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질의 중)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 고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놨다. 이 대통령은 현정 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다.(중략) 이대통령은 법 의 심판을 받고 차가운 감옥에서 사죄와 눈물의 참회록을 써야한다.”	부적절한 언사
14	새누리	안홍준	13.03.15	3.15 아트센터	(3.15의거 53주년 기념식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보건의료 노조원과 3.15 민주묘지 측의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부당해고 규탄 경남진보연 합 피켓시위를 하는 시위대를 향해) “좋은 날 왜 이래!”(참배 후) “3.15 정신이 뭔데, 좋은 날 왜 이래!”(시위대가 “당신은 (3.15를) 아느냐”고 하 자) “당신? 어디서...운동을 해도 내가 더 했다. 인마”	막말
15	더불어	정청래	13.03.18	정보위	(남재준 국정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도덕성 관련 질	부적절한 언사

연번	소속	의원명	일자	장소	내용	비고
	민주			회의장	의를 하지 않으면 정회하겠다는 서상기 위원장에게) “이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빠해요? 장관 가고 싶어요, 잘 보여서? 위원장을 청문회해야구만.”	
16	더불어민주	유인태	13.03.18	정보위 회의장	(남재준 국정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도덕성 관련 질의를 하지 않으면 정회하겠다는 서상기 위원장에게) “상식에 좀 맞게 하라. 누군 위원장 안 해봤나. 회의를 그따위로 운영하고 있느냐.”	부적절한 언사
17	더불어민주	이언주	13.04.13	정론관 국회브리핑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한 것에 대해) “제 버릇 개 못준다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폭정”	부적절한 언사
18	더불어민주	홍익표	13.04.23	트위터	“대선결과는 무효다. 아버지 박정희는 군대를 이용해서 대통령직을 찬탈했고,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도둑질했다.”	부적절한 언사
19	새누리	한기호	13.06.05	뉴스스 전화 인터뷰	(박근혜 정부가 4대약으로 규정한 학교폭력 실태 심층취재 인터뷰 중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예방책을 묻는 질문에)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다. 선생님들이 잘해야 한다.”	부적절한 언사
20	더불어민주	안민석	13.06.13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질문 중) “도대체 (총리는) 이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해할만한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 합니까, 안 합니까?”	부적절한 언사
21	새누리	이병석	13.06.19	외통위 회의장	(류길재 통일부장관 업무보고) “어디서 싱글싱글 웃고.”(류장관이 죄송하다고 사과하자) “나한테 주어진 질의 끝날 때까지 그대로 앉아 있어요. 반성하고 앉아 있으란 말이에요.”(외통위원장이 “질의 중이시냐.”고 묻자) “침묵도 질의, 간섭하지 말라.”	부적절한 언사
22	더불어민주	전순옥	13.06.05	산통위 회의장	(산통위 장관에게) “장관님 사직서 내셨다고 하셨죠? 장관님 사직서 내신 김에 그만두십시오.”	부적절한 언사
23	새누리	정우택	13.6.26	당최고 중진 연석회의	(노 前 대통령의 NLL대화록에 대해) “노 前 대통령은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규정지를 수밖에 없다.”	부적절한 언사
24	더불어민주	우원식	13.06.26	최고 위원회의	(NLL 대화록 관련 청와대를 비판하며) “박대통령이 사주목인.방조했으며, 사초를 열람하고 무오사화를 일으킨 연산군과 무엇이 다른가.”	부적절한 언사
25	더불어민주	은수미	13.6.25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NLL 회담록 공개 직후) “우리는 민생 도둑질 없애자고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했고 선거 도둑질 없애려 선거사범을 잡자 한 건데, 도둑질한 놈이 살인을 저질러 조사해보니 연쇄살인.(중략)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합의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걸어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무슨 개XX인가. 개처럼 목줄에 끌려 들어가야 하느냐.”	막말
26	새누리	홍문종	13.06.27	전국시·도당 사무총회	(민주통합당을 향해) “나라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	부적절한 언사

연번	소속	의원명	일자	장소	내용	비고
27	새누리	김을동	13.06.27	새누리 의총장	(NLL 대화록 공개 이후) “미누라가 빨갱이다 보니까 다 헝클어졌다.”	부적절한 언사
28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13.07.08	광주 당원보고 대회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이후) “공범을 감싸는 당선(박근혜 대통령)도 또한 공범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언사
29	더불어 민주당	신경민	13.07.08	광주 당원보고 대회	(NLL 대화록 관련) “이 대화록은 김무성 지능으로는 도저히 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국정원장이란 자가 NLL 문건을 들고 와서 국회에 와서 뿌렸습니다. 이런 ‘미친 X’이 어디 있습니까.”	막말
30	더불어 민주당	정청래	13.07.09	국정원 국조특위	(국조특위와의 제척사유자로 새누리당 이철우, 정문헌 의원이 특위직을 사퇴하자) “도둑이 조사 회피 목적으로 당신도 그만두라고 하는 격”	부적절한 언사
31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	13.06.17	법사위 회의장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관해) “체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 일 것.”	부적절한 언사
32	더불어 민주당	전병헌	13.07.11	원내 대책회의	(국정원 개혁에 대해) “국정원의 셀프개혁 주문이 결국 셀프정치 개입으로 귀결됐다. 국정원이 시리즈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국정원은 이성을 상실한 집단으로 정쟁의 도화선임을 자임했다.”	부적절한 언사
33	더불어 민주당	전병헌	13.07.10	원내 대책회의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2차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이 합의문 없이 종료된 것에 대해) “대화의 창을 안 닫고 기업의 추가방북을 허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측은 과욕을 부리지 말고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	부적절한 언사
34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	13.07.11	국회	“귀태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입니다.”	부적절한 언사
35	더불어 민주당	김경협	13.07.13	공공의료 국조특위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의 독단적 판단. 마치 히틀러가 나치세력의 결집을 위해 유대인을 집단학살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모양새”	부적절한 언사
36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13.07.14	당원 보고대회	“박정희가 누구이고 누구한테 죽었나. 박씨 집안은 안기부, 정보부와 그렇게 인연이 짙긴가. 이제 끊어 달라.”	부적절한 언사
37	국민의 당	임내현	13.07.16	식당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중) “서부 총잡이가 죽는 것과 붕어빵이 타는 것, 처녀가 임신하는 것의 공통점은? 답은 ‘너무 늦게 뺏다’”	부적절한 언사
38	더불어 민주당	정청래	13.07.20	트위터	“바뀐 애는 방 빼, 바꾼 애들은 감빵으로.”	부적절한 언사
39	새누리	김태흠	13.07.25	국정원 댓글조사 특위	(박영선 의원을 향해, 3선의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비꼬아) “박 의원님, 순서 바뀌었든 아니든 내부에서 바꾸는 거니까 제발 좀 진지하게 질문 좀	부적절한 언사

연번	소속	의원명	일자	장소	내용	비고
					하게 해주세요. 3선 의원님.”	
40	새누리	이장우	13.07.25	국정원 댓글조사 특위	“이 문제는 팩트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도 안 봅니까. 오늘 신문 한 번 보세요.”	부적절한 언사
41	더불어 민주	박영선	13.07.25	국정원 댓글조사 특위	(김진태 의원이 박 의원의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 하자) “그런 사람이 인간인가? 나는 사람 취급 안 한지 오래 됐어요.” (김진태의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김재원 의원에게) “자꾸 점잖은 척 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마세요.”(중략)“양의 탈을 쓰고 나와 가지고 젊은 척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못 됐어요, 진짜로. 저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부적절한 언사
42	더불어 민주	박영선	13.08.05	국정원 댓글조사 특위 (비공개)	(남재준 국정원장을 향해) “국회의원에게 이럴 수 있어? 저게 국정원장이야?”	부적절한 언사
43	새누리 /더불어 민주 /새누리	이장우 정청래 김태흠	13.08.19	국정원 댓글조사 특위 (청문회)	정청래의원 :(의사진행발언 도중) “막말 대마왕은 이장우 의원이야.” 이장우의원 : “왜 반말이야.” 정의원 : “당신이 반말 하는 구먼.”(이후 중략) 이의원 : (청문회 방청객으로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떼거지” 정의원 : “이의원은 선구자(선천적구제불능자)네요” 김태흠의원 : “정의원은 입만 열면 허위사실 유포야.”(중략) 정의원 :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존경하는 이라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쟁이다.(중략)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부적절한 언사
44	새누리	조명철	13.08.19	국정원 댓글조사 특위 (청문회)	(권은희 과장님!) “광주의 경찰입니까? 대한민국 경찰관입니까?”	부적절한 언사
45	더불어 민주	김용익	13.07.04	공공의료 국조특위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에게) “닥쳐, 이 XX아!” (이후에도 “닥쳐!”라고 반복)	막말
46	더불어 민주	전병헌	13.09.26	국회	(정부의 무상복지 축소에 대해) “거짓말을 하려면 크게 하라. 간단하게 계속해서 반대하라 그러면 대중이 믿는다.”는 히틀러 말이 생각나게 한다.”	부적절한 언사
47	새누리	김진태	13.10.01 13.10.02	국회/ 라디오 인터뷰	“채동욱과 야당 여성 정치인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 (전 날 발언을 문제 삼는 민주당 쪽에) “왜 그렇게 들 난리인지 모르겠다. 편협한 여성 동료의식을 버렸으면 좋겠다.”	부적절한 언사
48	새누리	김태흠	13.10.8	국회	(전병헌 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	부적절한 언사

연번	소속	의원명	일자	장소	내용	비고
					고) “운동권 찌라시 같다.”	
49	새누리	이노근	13.10.14	국교위 국감	(장관에게 질문하며) “아니 그럼 안들을 겁니까? 귀 막고 있어요! 그럼.”	부적절한 언사
50	더불어 민주	강기정	13.11.18	국회 본회의장앞	(시정연설 직후 본관 앞에 세워진 청와대 차량을 옮겨줄 것을 요구했으나 다른 차량이 나간 뒤 읊길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자) “차를 빨리 빼라.” (며 차량을 발로 차고 대통령 경호실 소속 경찰과 몸싸움)	부적절한 언사
51	더불어 민주	윤호중	13.11.06	예결위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정치에 개입한 군인의 딸.”	부적절한 언사
52	더불어 민주	남인순	13.11.07	예결위	(대선 당시 기초연금 공약을 거론하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20만원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거짓 말하고 사기 쳐서 대통령 당선된 거 아닙니까?”	부적절한 언사
53	더불어 민주	정청래	13.11.12	트위터	“박근혜씨가 막말? 새누리당 과거를 돌아보라. 노대통령을 노가리라 욕설까지 퍼부었던 환생경제는? 당신들의 더러운 입부터 씻고 말하시라. 박근혜씨에게 묻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노가리라 비하하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던 환생경제보며 엄청 웃으신 적 있죠?”	부적절한 언사
54	새누리	박대출	13.11.20	국회	(대정부질문 중 질의자로 단상에 선 진성준 의원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과 관련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는 중) “중복하지 말고 월복하지.”	부적절한 언사
55	새누리	이장우	13.11.21	국회	(김재연 의원이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부당함을 따진 뒤 진보당이 민중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고 하자) “그게 김일성주의야.”	부적절한 언사
56	더불어 민주	진성준	13.11.21	폴리뉴스 전화 인터뷰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한 이외수 작가가 평택에 위치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초청 강연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하태경 의원이 문제 삼아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누구라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석연치 않으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중략,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에 대해) 진보당의 정당해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내란을 음모했다는 사건이 진실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면, 통합진보당의 과도한 주장이나 특히 아주 패쇄적인 그런 운동권 문화 속에서 있었던 부분을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	부적절한 언사
57	새누리	김태흠	13.11.26	운영위회의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비판하며) “무기계약직이 되면 이 사람들 ‘노동3권’이 보장된다. 특하면 파업에 들어가면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부적절한 언사

연번	소속	의원명	일자	장소	내용	비고
58	더불어 민주	양승조	13.12.09	당 최고위원 회의	(故 박정희 前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신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텐데, 국정원을 무기로 신공안 통치와 신유신 통치로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부적절한 언사
59	새누리	김성태	13.12.13	여의도 당사 비공개 회의	“니가 뭘데 국회의원인 나를 대기하라 마라 하느냐” “니 X이 서울시당 사무처장 했던 X이나” “니가 조직국장이면 다야. 중앙당 조직국장 잡았다고 뵈는 게 없냐”(이후 회의자료 무단 강취)	막말
60	더불어 민주	장하나	13.12.08	이메일 통한 개인성명	(개인성명을 통해 18대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며)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 뿐이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같이 대선 보궐선거를 치르자.”	부적절한 언사
61	새누리	최경환	14.04.02	국회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국회 교섭단체연설 도중 대통령 공약 폐기 대리 사과하라는 비판에) “너나 잘해.”	부적절한 언사
62	더불어 민주	문재인	14.04.05	트위터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입니다.”	부적절한 언사
63	새누리	심재철	14.04.10	최고 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합당 당시 기초선거 무공천을 합당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을 철회하자) “철수를 안 한다는 안철수는 실제로는 철수였다.”	부적절한 언사
64	새누리 /더불어 민주	김진태 정청래	14.04.12	트위터	(무인항공기가 북한에서 날아온 것을 두고 정청래 의원이 북한에서 날아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자.) 김진태의원: “미치도록 친북이 하고 싶다. 최고 존엄이 다스리는 주체의 나라에서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다. 미치도록 대한민국이 싫다.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건 다 조작. “정청래 생각”-너의 조국으로 가라.“ 정청래의원 : “김진태, 너의 소원대로 해주마. 간죽대는 너의 입을 원망해라. 법대로 처리해 줄 테니. 너의 감옥으로 가거라.” 김지태의원: “어느 야당의원이 저를 감방에 보낸다고 협박하네요. 그건 최고 존엄 한마디에 재판도 없이 공개처형 하는 나라에서나 가능한 거죠. 이래서 역시 이번 대한민국 국회의원 아닐 가능성 커!”	부적절한 언사
65	정의당	서기호	14.4.30	페이스북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위로했던 할머니가 섭외한 사람이라는 조문연출 관련) “사실로 확정될 경우 유가족과 온 국민을 농락한 쇼 행각을 벌인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구천에 떠도는 영혼들로부터 천벌을 받을 것.”	부적절한 언사
66	더불어 민주	서영교	14.06.18	국회 대정부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가리키며) “친일파 대통령에 친일파총리지명은 친일파 내각을 세운 것	부적절한 언사

연번	소속	의원명	일자	장소	내용	비고
				질문	으로 이는 제2의 경술국치.”	
67	더불어 민주	박지원	14.6.10	페이스북	(언론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 국정원장 후보 이병기 전대사가 내정되자) “총리 후보에 문창극 전 주필? 국정원장 후보는 이병기 전 대사? 극우 꼴통 세상이 열립니다.” “문창극 총리후보? 제2의 윤창중 될 것 같아 참으로 두렵습니다.” (전략) “낙마를 위해 총력 경주하겠습니다.”	부적절한 언사
68	더불어 민주	박지원	14.6.23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제가 볼 때는 99.99% 지명철회 혹은 사퇴하는 분에게 부관참시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물러나신다고 한다면 저도,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조용히 물러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엄격히 하겠습니다.”	부적절한 언사
69	새누리	이완영	14.06.30	세월호 국정조사	(국정조사 진행이 지지부진함을 항의하는 유가족들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했다.(전략) 경비는 뭐하냐.”	부적절한 언사
70	새누리	조원진	14.07.02	세월호 국정조사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항의하다 일부 야당의원들과 언쟁을 벌이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싸움을 말리자) “당신 누구야, 유가족이면 좀 가만히 있어.”	부적절한 언사
71	새누리	김태흠	14.08.01	당의원 총회	(총회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저렇게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어디 뭐 노숙자들이 있는 그런…….”	부적절한 언사
72	더불어 민주	신기남	14.08.06	트위터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진보니 보수니 하는 노선다툼을 그만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데올로기가 사라진지 20년이 넘었다.”고 한 것에 대해) “사상과 가치의 세계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발언. 노선다툼 없이 정당 존재 이유가있나? 이데올로기가 사라졌다니? 무뎌야가 됐나? 호모사피엔스임을 포기하려는가?”	부적절한 언사
73	새누리	안홍준	14.08.07	황우여 인사 청문회장	(25일째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두고) “제대로 단식을 하면 벌써 실려가야 되는 것 아닌가.”	부적절한 언사
74	더불어 민주	홍익표	14.08.25	페이스북	(고 김유민양 아버지 김영오씨의 가정사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유민 아빠를 향한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과 여당의 인신공격과 음해공작이 도를 넘어 국정원의 개입설도 나온다. 중동의 기사 행태는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나 북한과 같은 독재권력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쓰레기 기사. 정부·여당은 차마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른 최악의 패륜 집단.”	부적절한 언사
75	새누리	정우택	14.08.26	원내 대책회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정부·여당과 강경하게 대치중인 야당과 유족들에게) “5.16 혁명 전 민간단체들이 국회 난입한 그런 모습을 상기	부적절한 언사

연번	소속	의원명	일자	장소	내용	비고
					시킬 정도.”	
76	더불어 민주	김경협	14.08.26	트위터	(청와대 앞에서 닷새째 노숙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들과 면담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어머니의 마음은 직접 자식을 낳고 키워줘야만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달라는 요구는 너무 무리한 요구.”	부적절한 언사
77	새누리	이장우	14.08.26	브리핑	(김경협 의원의 트위터 8월 26일 트위터 글을 향해) “꼴통정당으로서의 입지를 버리고 더 이상 막 말을 하지 않는 품격 있는 제1야당으로 거듭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부적절한 언사
78	새누리	이장우	14.08.26	원내 대책회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투쟁을 두고) “약속과 신뢰 저버린 새정치민주연합이 투쟁을 선언한 것은 꼴통진보 4류 정당임을 입증.”	부적절한 언사
79	더불어 민주	장하나	14.08.22	페이스북	(세월호 특별법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실으며) “대통령 당선은 국가의 원수가 맞다.”	부적절한 언사
80	더불어 민주	김현	14.09.17	여의도 거리	(대리기사 폭행사건 연루) “내가 누군지 몰라?”	부적절한 언사
81	더불어 민주	설훈	14.10.17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뭐했냐. 대통령이 연애를 하지 않았겠지마는 안했다면 더 큰 문제이다.”	부적절한 언사
82	더불어 민주	설훈	14.09.12	문체위 국감	(윤종승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를 향해)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져 쉬게 하는 것이다, 79세면 은퇴해 쉴 나이 아니냐.”	부적절한 언사
83	더불어 민주	최동익	14.10.27	보건 복지위 국감	(도피성 출국으로 국감에 불출석 했던 한국적십자사 김성주 총재가 출석해 성실한 사과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음에도 맹폭을 하다가 질의 후 국감장 밖에서 자신의 보좌들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면 안 된다. 빨리빨리 확확 잘라야 하는데 다 답할 기회를 줘버리니까. 바로 잘라야 한다.”	부적절한 언사
84	더불어 민주	홍종학	14.10.07	기재부 국감	(정해방 금통위원에게 5~7월 기재부 관계자를 만난 일이 있는냐고 물었지만 기억이 안난다고 하자) “금통위원의 기억력이 저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 한글 모르세요?”	부적절한 언사
85	새누리	홍문종	14.10.29	미방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목 한국식품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대답 한 마디도 못 하고 돌아가려하자) “그냥 가시면 심심할테니 제가 질문 하나 하겠다.”	부적절한 언사
86	더불어 민주	강창일	14.11.17	예결위 회위	“왜 얘기하는데 시비를 걸고 그래 저 ××강파야 어디서 책상을 쳐. 인마 예의가 없어. 저런 양아치 같은...”	막말

연번	소속	의원명	일자	장소	내용	비고
87	새누리	김진태	14.11.27	상임위 공개석상	(누리과정 지원 예산 규모를 놓고 여야가 이틀째 대립) “야당이 아이들 떼쓰는 것처럼 과자 안 사 주면 밥 안 먹겠다고 생떼를 부리는 건데,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 버릇 고치기 위해선 밥을 굶겨야 한다.”	부적절한 언사
88	더불어 민주	최민희	14.12.16	국회 긴급현안 질문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지난해 5월 몰카(몰래카메라) 시계 2개를 구입했다. 정윤희 문건에 나와 있는 VIP(박근혜 대통령) 눈 밖에 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	부적절한 언사
89	새누리	이노근	14.12.16	국회 긴급현안 질문	(청와대의 몰카 구입과 관련된 최민희 의원의 발언 이후) “요새 정치인 버릇부터 고쳐야 한다. 뒷받침하는 게 없는 단서를 갖고 추리소설 쓰듯이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 의혹을 확대 발전 시켜 나가고 있다.”	부적절한 언사
90	새누리	이완구	15.01	기자와의 식사자리	“개 안 돼(라고 하면) 자기가 어떻게 죽는 지도 모른다.”	부적절한 언사
91	무소속	박주선	15.01.07	KBS 라디오	“문재인 의원이 당권을 잡으면 본인의 2017년 대선후보 유일 독재체제를 공고히 할 것.”	부적절한 언사
92	새누리	이만우	14.12.24	조세소위	(연말정산관련 논의 중 직장인 세 부담 증가가 연봉 8000만 원까지도 43만원이 늘어난다고 지적하자) “그러니까 얼마 안 늘어나요”	부적절한 언사
93	새누리	송영근	15.01.29	병영문화 특위	(군내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여단장에 대해)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이 사람 (외박을 거의 안나가서)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 들여다봐야 한다.(피해 여군에 대해)그 하사아가씨가 옆의 아가씨한테 얘기했다.”	부적절한 언사
94	더불어 민주	정청래	15.02.10	라디오 인터뷰	(문재인 당대표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을 두고) “히틀러 묘에 유대인들이 참배할 수 있나, 일본이 우리에게 사과한다고 야스쿠니에 가서 참배할 수 있나.”	부적절한 언사
95	더불어 민주	정청래	2015.4.8	최고위원회 회의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을 치는 것이 더 큰 문제.”	부적절한 언사
96	더불어 민주	김경협	15.03.08	정책조정 회의	“중북타령하는 여당의원들도 김기종씨와 함께 정신감정을 의뢰해봐야 하지 않을까.”	부적절한 언사
97	더불어 민주	김춘진	15.03.16	MBC 라디오	“무상급식의 예산은 의지만 있으면 많은 돈이 아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부담하는 돈이 연 600억 원 남짓인데 그러한 돈이라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	부적절한 언사
98	국민의 당	유성엽	15.03.12 15.03.13	페이스북	(전북지역 한 일간지에 실린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정체성 논란 기사를 링크한 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런데 쓰레기? 가지가지 아	막말

연번	소속	의원명	일자	장소	내용	비고
					닐까?” (이 페이스북 발언이 문제가 되어 일부지역신문이 이를 인용해 비판적 보도를 하자) “사실도 아닌 것을 단정적으로 소설을 쓴 쓰레기 같은 기자나 또 이것을 논평한 한심한 사람이나 태풍이 몰아쳐 쓸어버려야 세상이 좀 나아질 것.”	
99	더불어민주	설훈	15.04.01	MBC 라디오	(문재인 대표가 천안함이 북의 폭침이라는 것을 5년 만에 인정한 후 인터뷰에서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색다르게).”	부적절한 언사
100	더불어민주	이종걸	15.05.12	국회 본회의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에는 57개 법안이 상정을 기다렸으나 그 중 단 3건만이 처리되고 나머지 54개 법안은 야당의 반발로 상정조차 되지 못 한 뒤) “민생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정도면 많이 양보했다.”	부적절한 언사
101	더불어민주	박지원	15.06.03	새정연 워크숍	(내홍 수습을 위해 마련된 끝장토론 워크숍에서) “미친 ×들, 이게 뭐하자는 거냐. 의원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100분토론 연습하는 것이냐.”	막말
102	더불어민주	김경협	15.06.12	트위터	“새정치은 김대중·노무현 정신계승, 즉 친 DJ·친노는 당원의 자격. 비노는 당원 자격 없음. 새누리당원이 잘못 입당한 것.”	부적절한 언사
103	새누리	하태경	15.06.16	CBS 라디오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 4일 메르스 관련 긴급기자 회견까지 하며 메르스 확진 판정 받은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1565명을 전원 격리했으나 감염자가 나오지 않는 것을 두고) “이게 완전히 엉뚱한 곳에 똥볼을 찬 것.”	부적절한 언사
104	더불어민주	박범계	15.06.19	페이스북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논의되는 것을 두고) “꼼수가 작렬. 국회가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고쳐 보내고, 청와대가 거부권을 운운하니 집권당 대표가 정부 입장에 맞춰야 한다고(중략) 누가 금메달 따달라 했나요? 메르스 초기 정부대책 미비했다고? 부실이란 단어를 피하려니 대책이 없었다는 쪽?”	부적절한 언사
105	새누리	김학용	15.07.06	최고위원회의	(국회법 개정안 문제로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를 놓고 친박. 박계가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이 흥분해 험한 말을 쏟아내자) “개XX, 아우 더러운 XX, 병신 같은 XX.” 등	막말
106	더불어민주	유승희	15.07.20	최고위원회의	(대통령 사면이 논의되는 가운데 경제를 위해 경제인이나 정치인이 섞일 수 있음이 논의 되자) “정의를 위해 정치적 보복을 당하는 정 전 의원이 사면 1호가 돼야 한다.”	부적절한 언사
107	더불어	안민석	15.08.24	경기도산	(향우회 회원 180여 명과 동석한 자리에서 전북	부적절한 언사

연번	소속	의원명	일자	장소	내용	비고
	민주			호남향우회 야유회	부안군수에게) “군수께서 노래하시면 부안에 예산 100억 원을 내려주겠다.”	
108	더불어 민주	임수경	15.09.11	안행위 국감	(한국자유총연맹 허준영 회장이 ‘중복 세력을 두더지 잡듯이 분쇄하겠다’는 허회장의 취임사를 문제 삼으면서 중복 세력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여러 차례 따져 물으며) “임수경, 중복 세력입니까?”	부적절한 언사
109	더불어 민주	홍종학	15.09.14	기재부 국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질의하며) “기재부 공무원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기는커녕 재벌의 하수인이 되어서 재벌들의 소원만 들어주는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경제위기는 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획재정부가 한국 경제를 망친 주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적절한 언사
110	더불어 민주	박영선	15.09.14	기재부 국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질의 답변 중) “당연하지요 그 당시 수출기여도가 지금 쫓아 박고 있는데.” “수출 중심의, 수출이 쫓아 박고 있는데 지금 수출이 쫓아 박는 것과 내수를 비교해 가지고 지금 이게 내수가 잘되고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재벌 장학생들이 지금 독버섯 처럼 있어요”	부적절한 언사
111	더불어 민주	우원식	15.09.15	환노위 국감	(김대환 위원장이 사퇴했다가 복귀하기 전에 사례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치사하다.”(참여정부 시절 김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을 지낸 사실을 언급)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대 실패작.”	부적절한 언사
112	더불어 민주	강창일	15.09.18	안행위 국감	(정종섭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것을 비판하며 단핵소추할 야당의 계획에 대해 조원진 의원이 비판 발언을 하자) “원내 수석부대표인 양반이 여기 와서 깽판을 놓으려고 그래.”	부적절한 언사
113	새누리	서청원	15.10.27	최고 위원회의	(국정화 관련 TF로 의심된다며 심야에 야당 의원들이 건물을 기습한 것을 두고) “야당이 화적떼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적절한 언사
114	더불어 민주	이종걸	15.10.29	정책 조정회의	(한국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서청원 의원이 야당 의원을 화적떼에 비유하고 이정현 의원이 현재 한국사 교과서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적화통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분들을 그냥 친박이 아니라 친박 실성파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전체 책을 보면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고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무속인이 아닙니다.”	부적절한 언사
115	더불어 민주	정청래	15.10.28	최고 위원회의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김무성 대표가 박수를 치는 모습을 비꼬아) “김무성 대표는 건성건	부적절한 언사

연번	소속	의원명	일자	장소	내용	비고
					성 박수를 쳤습니다. 일부 언론의 지적에 따르면 양손의 손바닥이 닿지 않은 매우 무성의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최고 존엄에 대한 박수 치고는 너무 무성의했다.”	
116	더불어민주	배재정	15.10.08	교문위 국감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입니다. (그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 말을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여기 있습니다. 신문에 있습니다.”	부적절한 언사
117	정의당	심상정	15.11.17	PBC라디오 인터뷰	(11.14 대규모 도심 집회에 대한 정치권 공방에 대한 질의 중 각목, 밧줄, 쇠파이프, 횃불까지 동원된 시위대 또한 평화시위는 아니지 않았는가를 묻자) “...생존권을 위협받는 민생현실 때문에 그것을 정치권에 호소하기 위해서 시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민중총궐기 배후는 박근혜정부라고 봐요.(후략)”	부적절한 언사
118	더불어민주	이종걸	15.12.22	당원내대책 회의	(대통령의 경제위기 관련 발언에 대해) "경제 심리를 철저히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데에서 '선거의 여왕'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병신입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부적절한 언사
119	더불어민주	김용익	16.01.07	트위터	(한일 위안부 협상이 최선이었다고 한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를 향해) “밤 길 조심하라.”	막말